

해외 북한통일학 학술 교류 프로그램

No. 16

2021. 12. 10. ~ 12. 31.



“

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.

본 사업을 통해 해외 북한 연구자들과 국내 북한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그룹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,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.

펠로우십-학위과정 프로그램

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화된 학술 프로그램으로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특별 강연, 남북 분단현장 방문 및 문화체험, 세미나, 전담/지도 교수제 등을 통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, 극동문제연구소·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존 학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타 기관 및 학회 연계 학술 행사 등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학술 활동 및 대외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

연구발표회 ①



일 시: 2021년 12월 13일 (월) 10:00~12:00

장 소: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(온라인 Zoom 병행)

발 표 자: 오웬 밀러(Owen Miller), 딜런 모틴(Dylan Motin)(이상 펠로우 연구위원)

주요내용: 펠로우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에 대한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. 오웬 밀러 연구위원은 “1945년부터 1950년의 북한의 공업도시 흥남 - 해방부터 우상화까지,” 모틴 딜런 연구위원은 “분단국가의 평화적 통일은 언제 가능한가? 세력 균형과 평화통일 중심으로”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멘토 및 소내 교수들이 논평을 진행하였다.

연구발표회 ②



일 시: 2021년 12월 15일 (수) 10:00~12:00

장 소: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(온라인 Zoom 병행)

발 표 자: 조찬현(Cho Chanhun), 량미화(Liang Meihua)(이상 펠로우 연구위원)

주요내용: 조찬현 연구위원은 “북한의 핵문제는 왜 3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나? - 이익과 불이익 사이 미국의 딜레마,” 량미화 연구위원은 “1950년대 북한의 대 중국 상대적 자율성 형성에 관한 연구”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멘토 및 소내 교수들이 논평을 진행하였다.

수료식 및 차관 간담회



일 시: 2021년 12월 20일 (월) 11:00~12:00, 16:00~17:00

장 소: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, 통일부 차관실(정부서울청사)

참 가 자: 펠로우 및 학위과정생, 연구소장, 소내 교수진, 교내직원 외

주요내용: 2021년 펠로우 4인(오웬 밀러, 딜런 모틴, 조찬현, 량미화)의 연구 수료식과 통일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

일 시: 2021년 12월 16일 (목) 14:00~18:15

장 소: 조선포털 오키드룸(서울시 중구 소재)

주 제: 2021년 한반도 정세 평가

참 가 자: 펠로우 및 학위과정생, 연구소장 외(약 20인)

주요내용: 2021년 한반도 주요 정세를 평가하고 2022년 남·북·미·중 관계 및 북한 내부 변화를 전망하였다.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 전략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알림 사항

[주요 연구활동 내역]

1. Nagasawa Yuko Fellow

(1)

- 일 시: 2021년 12월 12일 (일) 13:30~16:50
- 구 분: 학술회의 발표
- 주 제: “한국과 독일 연구 비교 - 『현대 독일의 시좌(視座)』란 무엇인가?”
- 행 사 명: 『현대 독일에 대한 시좌(視座)』 총 3권 완결 출간 기념 심포지엄
- 주관기관: 도쿄대학교 독일·유럽연구센터/독일학술교류회(DAAD)

(2)

- 일 시: 2021년 12월 21일 (화) 20:30~22:00
- 구 분: 특강
- 주 제: “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그리고 북일관계의 문제점”
- 행 사 명: 한일 이음새 특강 - 일본 사회의 현황
- 주관기관: 공익단체 이음새 Footbridge